## 대선 개표 방송 '기술 전쟁'

지상파 3사, AI·확장현실 등 도입 화려한 그래픽·유명 논객 섭외 등 격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송사들이 당일 개표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붙잡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 3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도입해 화려한 그래픽을 선보이고 유명 논객도 섭외하는 등 뜨거운 격전을 예고했다.

전보이고 유경 는쪽도 합의하는 등 그가는 역전을 예고했다.

◇ 신기술 활용해 화려한 볼거리…최대 규모 LED 무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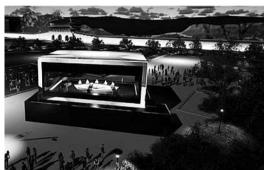
KBS는 이번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에 생성형 AI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후보자 득표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픽과 함께 생성형 AI로 만든 우리나라 현대사의 주요 순간을 보여주고, 출구조사 카



MBC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KBS 개표방송의 주 무대인 'K-큐브'

운트다운 영상 역시 AI 기술로 구현할 예정이다.

그간 개표방송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제한적으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전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BC는 개표방송에서 기존 세트를 과감히 확장한 초대형 발광다이오드(LED) 무대를 선보인다. 방송 역사상 최대 규 모의 LED를 투입해 기존의 4면 스크린에서 6면 스크린으로 선거방송 공간을 확장했다. 가로 도합 44m, 높이 7m의 메인 무대 LED 스크린을 한 폭의 화면처럼 활용한 착시 그래픽도 준비했다. 역대 가장 많은 40여 종의 선거 중계 포맷을 내세 웠다는 점도 관전 요소다. 초고화질 일인칭 시점(FPV) 드 론으로 찍은 풍경과 수준 높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는 재미 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SBS는 개표방송에서 국내 최초 XR 라이브 토크쇼에 도 전한다. 토크쇼 스튜디오를 국회, 가상의 대통령 집무실 등 3차원(3D) 입체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5곳의 장소로 바꾸는 연출을 추가해 몰입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당선예측 시스템···KBS '디시전K+'·MBC '적중'·SBS 'OạiCi'

유획당 KBS는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K+'를 선보인다.

제16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디시전K+'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별 최종 득표율을 예측해 '유력', '확실', '당선'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도입된 이후 대통령 당선자예측에서 100%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MBC도 출구조사 결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과거 선거 자료와 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후보들의 당선 확률을 분석하는 시스템 '적중 2025'로 당선 후보를 예측한다.

'적중'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시스템으로, 지난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층 높아진 정확도를 보여줄 것으로 MBC는 기대한다.

SBS 역시 사전 출구조사와 현재 개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 확률을 분석하는 시스템 '유확당'을 선보인다. 투표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심층 설문조사 결과도함께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다.

◇ 정치 논객 토크쇼도 함께…궤도·최태성 강사 출연하는 특별 귀성도

지상파 3사는 개표방송과 함께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해설해주는 정치 토크쇼를 함께 진행한다.

KBS는 진보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김상욱 의원을,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토크쇼에 섭외했다.

MBC는 토크쇼 '토론M'에 진보, 보수 대표 논객으로 유시민 작가와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을 섭외했다.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는 권순표 앵커가 사회자로 나선다. 특별 토크 코너 '민주주의 이즈(is) 사이언스'도 준비돼있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역사 강사인 '큰별쌤' 최태성, 구독자 100만 명인 과학 유튜버 '궤도'가 출연해 과학과 민주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짚는다.

SBS 토크쇼 '썰통령'에서는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MZ 패널들이 나선다. 진보 진영에서는 유튜브 '사장남 천동' 진행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략자문단 부단장인 오창석과 청와대 청년비서관 출신 박성민이,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백지원 대변인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 박보검 액션 드라마 '굿보이' 첫방 시청률 4.8%

배우 박보검이 주먹을 휘두르며 맨몸으로 구르는 액션을 선보인 새 드라마 '굿보이'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0분 방영된 JTBC 새 토일드라마 '굿보이' 첫 화 시청률이 4.8%(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1화에서는 한때 메달을 땄던 국가대표였다가 지금은 경찰이 된 윤동주(박보검 분), 지한나(김소현), 김종현(이상이), 고만식(허성태), 신재홍(태원석)의 고군분투가 담겼다.

윤동주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이다. 온갖 사고를 몰고 다니다가 좌천된 윤동주는 우연한 기회에 범죄조직 금토끼파 와 관련한 단서를 찾게 되고 홀로 이를 쫓아간다.

과거 영광의 무대에 섰던 왕년 국가대표들이 그때의 실력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상대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시원시원한 액션 연출로 보여줬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박보검을 볼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데뷔 60년' 송승환 11~22일 서울 북촌서 사진전



## "이제 욕심 내려놓을 나이 그래도 연기할 때 가장 행복"

8살 데뷔…난타 제작·평창 올림픽 총감독 활약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 시련에도 다시 무대로

"저도 조금 지나면 칠순이니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을 나이죠. 지금이 지난 60년을 돌아보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배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만들고 싶은 공연이 있으면 제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올해로 데뷔 60년을 맞은 송승환(68·사진)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8살에 아역배우로 데뷔한 이래 탤런트부터 연극배우, MC, 라디오 DJ, 공연 제작자, 국가행사 총감독까지 다양한 역할을 쉴 새 없이 소화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 수많은 수식어 가운데서도 배우로 소개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PMC프러덕션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연기를 할 때 가장 순수해지는 것 같다. 배역에 몰입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고 행복하다"며 "누가 언제 물어도 '저는 배우'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데뷔 60년을 기념해 나온 책 제목도, 오는 11~22일 북촌에서 열리는 사진전 타이틀도 '나는 배우다'다.

송승환이 처음 방송가에 발을 들인 것은 우연에 우연이 겹쳐 벌어진 일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어린이 동화 구연대회에서 1등을 해 KBS 라디오에 나가게 됐다. 여기서 PD의 눈에 띄어 '은방울과 차돌 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고, 곧이어 '똘똘이의 모험' 등 어린이 드라마에서도 연기했다. 11살에는 연극 무대에 올랐다. 누구보 다 바쁘게 지내던 그는 1985년 돌연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무일푼으로 도착한 미국에서는 가끔은 한인 방송 아르바이트도 하고, 벼룩시장에서 물건도 팔며 돈을 벌었다. 3년 반의 미국 생활 끝에 송 승환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연 제작자로서의 시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국내 흥행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꿈꾸게 됐다.

1989년 극단 '환 퍼포먼스'를 세워 콘서트를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앨범을 제작했다. 뮤지컬 '고래사냥'을 거쳐 1997년에는 비언어극 '난타'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

성공한 공연 제작자가 된 송승환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 식의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당시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과 미디어아트 등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5는 세계ㅋㅡ도 되시다 있어. - 이처럼 성공 가도를 이어가던 그에게 돌연 시련이 닥쳤다.

송승환은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망막색소변성증이고 나중에는 실명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시야가 흐릿해져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재밌고 좋은 점도 있다며 유쾌하게 덧붙였다.

"대본을 못 보니 일단 귀로 들어가며 전부 외우게 됐어요. 무대 위에서 집중력도 좋아져요. 상대방의 대사를 더 집중해서 듣다 보니 제 리액션도 좋아졌죠. 인생에서 뭐 하나 나빠지면, 또 하나 좋아지는 게 있구나 싶습니다." /연합뉴스

